

[ 오피니언 ]

光日春秋

이만열



오는 11월 25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하고 몇몇 기관이 후원하는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전 국민이 우리 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첫 시험에 1만6천5백70명이 응시하게 되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광범한 호응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의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 시험으로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뜻뜻하게 호응하는 것은 평소 국사교육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여론의 도음도 컸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국사교육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자적으로 고안 계획되었다. 과거 몇 년 동안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왜곡과 중국 동북공정의 한국고대사 말살 책동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는데, 이를 때마다 여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뿐이다'고 결론지어 주었다. 이

렇게 모여진 여론이 정책으로 동력화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수업시수와 전담교사를 늘리는 문제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역시 전담부서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교육부로 넘어가지만 하면 더 진전되지 않고 거기서 주춤거리고 말았다. 벌써 몇 번이나 그런 좌절은 되풀이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국사교육이 도외시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여러 시책에서도 국사가 경시되는 조처들이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에서 국사과목의 시험이 폐지되었다. 이는 역사적 소양이 제대로 없어도 고급 공무원이나 공직자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다. 각

종 승진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의 시험은 줄어들었다. 대학의 교양 필수과목에서도 국사는 퇴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국사 교육은 방송매체의 사극이 전담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들이 오가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교육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학생과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국사교육의 강화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거니와 학생과 일반국민을 상대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만한 역사적인 소양을 쌓고 있는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학교의 국사교육 못지않게 국민의 국사교육을 진작시키고 역사적식을 고양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토플 등의 영어자격시험이나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이 그 활용도를 점차 증대시키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활용전략에 따라서는 그런 어학 시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종 공직, 사적 기업체가 입사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사교육은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작한다.

이제 여론이나 학교 교육만으로 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나가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세계화를 지향하며 할수록 더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국민적인 협조를 받아 제대로 꽃피우고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로 한 국사교육 강화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을 인터넷에 띄워 국민 각자가 조선왕조실록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적식을 높이는 방안인데, 올해 초 개설한 이후 벌써 82만여명이 방문하였다. 다른 하나가 바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식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사학은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학창 시절 공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검정시험은 자신이

시설

헬세 낭비 심각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광주시의회의 해외연수가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겨우 5.7%에 머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흥사단 투병사회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광역시별 해외연수의 목적 부합률에서 광주시의회는 5.7%로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천 22.7%, 부산 18.0%, 대구 16.2%, 대전 14.0%, 울산 13.6%, 서울 10.6% 등 타 광역시의 목적 부합률이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 원씩 총 203억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목적과 부합한 비율은 20%도 안됐다.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한 꼴이다.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무원여행이 그 자체의 목적과 거리가 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잡음이 끊이

지 않은 것은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의회나 지자체의 해외연수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선진기술과 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연수는 글로벌시대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연수가 헬세를 낭비하는 관광성 외유로 변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 목적이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외연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해외연수 주민참여 심의제도를 명문화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내년엔 국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인당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하며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살림살이는 갈수록 조물리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저출산·고령화' 국민 모두의 문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234만 3천명으로 줄게 된다. 결국 인구가 5천만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전남의 인구는 2030년까지 31%인 51만명이 줄어들어 125만명으로 떨어지고 2019년경 광주에 추월당한다. 광주도 25년간 3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를 맞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의 성장동력은 그만큼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도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 9.1%인 노인인구 비중이 2018년 14.3%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50년엔 38.2%로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게 된다. 지난해 생산가능 인구 7.9%가 노년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과 2050년엔 각각 2.7명, 1.4명이 노년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재원조달방안 등이 뒤따르지 못해 흐지부지된 상태다. 국민연금개혁안도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저출산·고령화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출산수당 지급과 다자녀 가구 우대 등 대증요법식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희 단사표음(單食飩)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도시락 밥과 표주박 속의 국으로서, 구차하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뜻하는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올바른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안빈낙도의 삶은 성인의 경지에 이른 소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경지이지, 실상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락밥과 표주박 국이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이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단사표음이라는 말보다는 '수염이 깎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와 같은 속담에 더 절실한 현실감을 느끼게

기고 박용순 농경사회에서는 농촌이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생활·문화의 토대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만이 중시되는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이농(離農)이 가속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주목을 받게 되고, 농촌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면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회생을 위해 농촌가치의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無等鼓 결론 지난해 2000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출품했던 영화 '물랑루즈'는 1900년 프랑스 파리의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폐결핵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사틴'과 무일푼의 젊은 시인 '크리스티앙'의 사랑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핵심 소재다. 이들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다. 여주인공 사틴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한때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은 으레 폐결핵 환자였다. 특히 주인공이 예술가일 경우 폐결핵을 앓다 숨지는 장면이 영화나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곤 했다. 스트레ptomycin 등 결핵 치료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사라진 결핵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87명 꼴로 OECD국가중 1위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결핵 발병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과 부산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감염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양 불균형에 스트레스가 많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 양심을 버리는 행위 연휴 기간 및 교통량이 많은 지·정체 구간은 쓰레기투기 행위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속도로상에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형태는 자동차 운행중 차 밖으로 쓰레기 투기를 비롯해 화물차적재물 비산 및 낙하, 영업소 주변 영수증 버림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정비원, 쓰레기 청소차 및 안전순찰팀 차량이 매일 고속도로를 순찰, 잡물수거를 한 뒤 수거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간 7천 500톤. 처리 비용은 15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포상제도를 제쳐두고라도 시민 스스로 자신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투기 행위를 자제했으면 한다. ▲조혜령·한국도로공사 곡성영업소

장애인 배려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는 것부터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1천원짜리 선봉기 보자기부터 3천원짜리 자동 허리띠, 5천원짜리 전기면도기 등이다. 지난 토요일에도 남광주역에서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었다는 장애인 한분이 타서 찻술을 팔았다. "편히 쉬는 시간에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파는 찻술값은 1천원. 그런데 찻술을 샀던 아줌마 한 분이 그 찻술을 다시 찻술 보따리에 슬쩍 되돌려 넣었다. 물론 아줌마는 좋은 뜻에서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물건을 팔던 청년은 아줌마에게 아가 받았던 찻술값 1천원을 되돌려주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아줌마의 값싼 동정심이 장애인 청년을 자극한 듯했다. 순간 아줌마는 멍청했는지 "별뜻 없었어요, 오해 마세요"하며 다시 찻술을 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먼곳에 있지 않았다. 일종의 동정심조차도 그사람들에게는 편견인 것이다.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주는 게 정말 장애인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천창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